

*면역요법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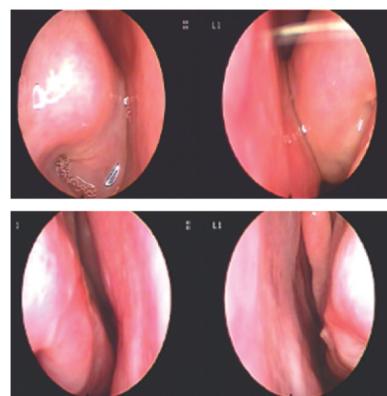
면역치료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아주 적은 양으로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증량하면서 체내에 주입하여 원인물질을 차단하는 항체를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주사만 있어 환자들의 고통이 심하였지만 최근에는 허밀로 약물을 투여하는 기법이 개발되어 환자들이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년 이상의 장시간이 필요하여 적지 않은 노력과 경제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며 적용 대상에 제한이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시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약물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재발이 너무 잦은 경우, 병원에 자주 오기 힘든 경우 등에서는 다음 단계로 수술적 요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래에는 **고주파기기**를 이용하여 콧속 점막을 응고시켜 기능을 줄여주는 수술 요법이 널리 이용됩니다. 이는 수술 시간이 짧아 당일 수술로 가능하고 만족스런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적 요법은 효과의 지속 정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의와 사전에 상의가 필요합니다.



◀고주파 비염 수술 전
◀고주파 비염 수술 후



당일 수술 및 퇴원이 가능합니다. (낮병동 입원)

진료안내

귀질환 난청, 이명(귀울림), 이개 및 외이도 질환, 어지러움
보청기 안면마비, 급만성 중이염

코질환 코골이, 코막힘 및 코감기, 축농증, 물혹, 비중격만곡증
알레르기 비염 및 만성비염

목질환 목감기 및 몸살감기, 편도선염, 후두염, 후두암, 침샘염
구내염, 목이물감, 쉰목소리

소아ENT 소아중이염, 소아비염, 소아축농증, 소아코골이, 소아난청

미용성형 보톡스, 필러, 피어싱

코골이클리닉

보청기클리닉

진료시간

(수술예약)
• 평 일 : 오전 9시15분 ~ 오후 6시30분
• 토 요 일 : 오전 9시15분 ~ 오후 1시
• 점심시간 : 오후 12시45분 ~ 오후 2시
• 공 휴 일 : 오전 9시15분 ~ 오후 12시30분
• 일 요 일 : 휴 진



www.hurjunent.co.kr

-보호자와 환자를 위한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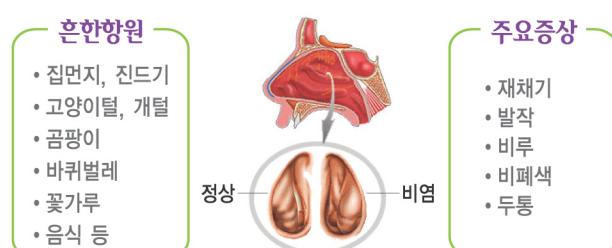
"허준이비인후과"에서는
가벼운 감기에서 수술까지 귀, 코, 목의 모든 것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알레르기란 보통 사람에게는 반응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반응을 보이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에 병적으로 과민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알레르기성 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가장 흔하며 그 외에도 각질막염 같은 안질환, 기관지 천식 같은 폐질환, 피부에 생기는 두드러기나 습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별작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의 3가지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알레르기는 잡먼지진드기나 동물의 털 등 어떤 특정 항원에 대해 특이한 면역반응이 원인이 되며, 이러한 면역반응은 혈액 내의 특이 면역단백질(IgE)에 의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의 꽃가루(화분)가 비산하는 계절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화분증(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라 하며, 만성적이고 계절과 관련 없이 연중 계속되는 것을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화분증은 흔히 '꽃가루 알레르기'라 불리는 알레르기 비염으로서 쑤이나 잔디 등의 풀 꽃가루, 자작나무 등의 나무 꽃가루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특정 계절에 재채기 발작 증세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은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연중 증상이 있고 가장 흔한 항원으로 잡먼지 진드기가 있고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에 민감한 환자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곰팡이, 직물류, 담배, 식품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이 항원이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바퀴벌레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통년성 비염 환자도 환절기에 증상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단

병력이 중요하며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서 병력만으로도 진단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비내시경 검사, MAST검사, 알레르기 피부 반응검사, X-선 촬영, 콧물 세포검사, 음향 비강 통기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알레르기의 유무 및 원인물질 그리고 심한 정도에 대한 진단을 내린 후 치료방침을 결정합니다.

알레르기 환자에서 그 원인물질은 환자주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가족의 병적사항 및 생활습관을 포함하여 언제, 어디서 증상이 악화되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상을 유발하는 **알레르기 항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의사가 치료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비내시경을 이용해 코 안을 진찰하여보면 점막이 종창되고 창백하며, 분비물이 수양성이나 점액성입니다. 농성 분비물이 있으면 이차감염으로 인한 부비동염을 의심하고 X-ray나 CT를 이용해 확인한 후 이를 같이 치료하여야 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유무 및 그 원인물질을 알아내기 위한 확진검사는 **혈액검사(MAST)**: 혈청내 특이항원을 검출하는 방법)와 **피부반응검사**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혈액검사(MAST)는 1회 채혈로 검사가 가능하므로 환자의 고통이 적고 약물 복용 여부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피부반응검사는 화석된 항원액을 피부에 소량 흡수시켜 반응을 보는 방법으로 20분 내 검사 결과를 바로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민감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여러차례 바늘로 찔러야 하므로 통증이 있고 모기에 물린 듯한 가려움증 등의 반응이 생길 수 있으며 약물 복용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

알레르기 비염은 일단 발병하면 사춘기나 성인이 되면서 약 20%는 자연 소실되지만 평생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를 완치보다는 조기에 치료함으로서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축농증 같은 이차적인 합병증을 예방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회피요법은 무엇인가요?

알레르기 피부반응 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찾아낸 원인 물질을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이 알레르기 치료의 제 1단계로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원인 물질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완벽한 회피가 힘들더라도 증상의 완화 및 발현 빈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약물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약물 치료시에는 상태에 따라 향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비만세포안정제, 항콜린제, 점막수축제 등의 약물을 사용합니다. 효율성이 좋고 부작용이 적으며 장기간 치료해도 경제적 부담이 적도록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는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경우 대부분의 환자에서 증상 완화를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점막 수축제는 약을 사용할 당시에는 코막힘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나 일주일 이상 사용시 약물 부작용으로 콧속의 점막이 다시 부어 더욱 코가 막히게 되는 약물유발성 비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가치료는 금물**입니다.

